

무주군, 中등봉시 초청방문

국제 소림무술제 참관 관광·농업 정보 공유

황정수 무주군수 일행이 지난 15일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하남성 등봉시로부터 초청을 받아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무주 대표단 자격으로 제11회 중국 정주 국제 소림무술제를 참관하고 관광과 농업에 관한 정보들을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19일까지 4박 5일 일정에는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과 이대석 의원, 이성수 의원을 비롯한 무주군청 기획, 행정, 관광, 농업 분야의 공무원들이 동행했다.

15일 중국에 도착한 황 군수 일행은 먼저 등봉시 정복림(鄭福林) 위서기 와 왕홍훈(王鴻勳)시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홍보했으며 태권도와 소림무술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또 2017 무주대회 개최를 염두에 두

고 70개국 5만여 명 규모의 국제 소림무술제(1991년부터 소림무술의 본고장 정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통무술축제)에 참석해 행사 진행모습과 세부 프로그램, 그리고 준비상황 등을 꼼꼼하게 벤치마킹했다.

이외에도 중국의 4대 서원으로 꼽히는 유고서원과 하남성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중약요(도교서원)를 방문해 무주군 문화재인 무주향교와 백산서원, 분양서원의 보존 및 관광자원화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질공원 지정을 위해 중국 5대 명산의 하나로 소림사가 위치해 있는 숭산(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에 올라 주변 환경과 자원들을 둘러봤다.

정주시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로 야시장에도 들러 무주반딧불시장에 접목할 만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업 관련 시설을 방문한 황 군수 일행은 중국에서 추진 중인 농촌건설운동 등 농업정책들을 공유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 관심사를 모으고 있다.

황 군수는 "태권도와 소림무술의 고

정이라는 자부심으로 맺은 무주군과 등봉시의 인연이 해마다 반딧불축제와 국제소림무술제를 통해 무르익고 있다"며 "이번 방문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어 더 생생했고 더불어 관광도시로 앞서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그들의 역사와 문화, 농업정책들을 두루 배워볼 수 있어 특별했다"고 전했다.

황하문명의 발상지, 소림무술의 본고장으로 잘 알려진 중국 하남성 등봉시에는 현재 6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83개 무술관을 갖추고 있는 소림사에는 4만 명의 학생들이 무술을 연마하고 있다.

무주군과는 2004년 자매결연 의향서를 교환한 후 2005년 정식 결연을 맺었으며 이후 소림무술단이 해마다 무주반딧불축제장을 찾아 소림무술을 선보이고 있다.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원들도 2014년 국제 소림무술제를 찾아 전세계 무술인들에게 태권도 시범을 보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무주=전문기자

완주경천 편백숲, 힐링장소 '주목'

숲길·숲속 도서관 등 가벼운 산행 안성맞춤

현대인들의 민병통치약이라 불리는 '편백나무'가 가득한 완주군 경천면 편백 숲이 힐링 장소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경천면 편백숲은 26년생 편백나무 6000주를 포함, 총 6만여 m² 규모 편백나무가 조성돼 있으며, 길 곳곳에 구절초가 피어 있는 등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아 숲이 잘 보전돼 있다.

특히 완주군은 2016년 경천리 산 51번지 일원에 군비 2억원을 들여 가벼운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약 50분~80분 거리 2km 정도 구간에 편백나무 숲길과 숲속 도서관 10여개소, 숲길 사이에 벤치 등 휴식 공간을 조성했다.

편백나무는 피톤치드라는 천연 항균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비염과 천식을 예방·치료하고 알레르기 와 아토피를 개선하며 면역력 향상과 불면증 해소, 현대인들의 민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다.

박일근 경천면장은 "완주 IC를 지나 대둔산 방향으로 20분쯤 달려서 만나볼 수 있는 경천 편백



나무 숲길을 이번 가을에 가벼운 산행 코스로 선택해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천면 편백 숲은 완주군 경천면 초입 오복마을 농촌사랑 학교를 끼고 30분쯤 가볍게 걸으면 만날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사과 제2도약 기회 마련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선정 2년간 7억여원 지원 받아

장수사과 명품화 사업이 2017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돼 2년동안 7억 2천 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지역에 맞는 특성과 품목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38개소)와 2차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를 통해 장수군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해 최종 25개소가 선정됐다.

장수군은 그간 정책적으로 잘 육성한 사과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통해 장수사과 제2도약 기회를 마련하고자 품질향상과 유통 다양화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장수사과 Level-up 명품화'를 목표로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체계 구축 ▶협회의 운영 및 명품화 교육 ▶이용편이 세척사과 포장시스템 구축 ▶저독성 사과 방제체계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군농업기술센터 서정원 소장은 "수입산 과일에 맞서 장수사과의 품질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 안전사과 생산을 위해 군비 5억을 투입하여 제조제 없는 사과원 조성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시도 보고 강연도 듣고'

무주군, 20일 태권도 국가대표 초청강연 실시

무주군은 오는 20일 저녁 6시 전통문화의 집 2층 강당에서 태권도 국가대표 초청 강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코소 형태로 진행될 예정인 이번 행사는 2016 명사 전문가 초청 HAPPY 365 문화행사(주최 무주군 / 주관 무주문화원)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2016 리우올림픽 출전 태권도 국가대표 오혜리 선수(67kg급 금메달)와 김소희 선수(49kg 금메달), 차몽민 선수(80kg이상급 금메달)를 초청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선수들은 청중들이 궁금해 하는 "국가대표의 삶",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태권도의 위상과 매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주군 무주읍 최북미술관에서는 21일(14:00~)부터 27일까지 무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정기 회원전 "가을사랑"展(주관 무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건트라(프라모



델), Clay Story(도자기), 글로리 캘리그라피, 돌멩이(석채화), 반딧불목공예, 버릇잡아생화, 생활가구 DIY, 허브새늘(아로마테라피), 켈트(손노리/부남) 등 공예와 미술 분과 9개 분야 80여 명 회원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무주=전문기자

완주 '대둔산 미술관' 개관

완주군 대둔산 관광객 및 운주면 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전할 '대둔산 미술관'이 지난 16일 문을 열었다.

대둔산 미술관이 들어선 '(구)대둔산 토산품 전시관매장'은 1994년부터 농업 협에서 운영했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2015년도부터 방치돼 왔다.

군은 이를 대둔산 활성화 및 지역민에게 수준 있는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 군비 3억여원을 투입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켰다.

특히 군은 '향아학교(대표 김진성)'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대둔산 미술관' 문을 열었다.



앞으로 대둔산 미술관은 문화공간의 성격에 맞게 지역의 문화 복지 및 향유 차원으로 주민과 방문객들과 함께 문화를 공유하고 성장하는 미술관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또한 그림, 도자기, 난 화본 제작 등 체험 공간을 연중 수시로 운영하며 매년 각 분야의 예술 작품도 전시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

특별블로그

장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장수군에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읍면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수군은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장수군은 우선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고질적인 체납액을 일제히 징수, 압류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세금 체납자는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액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21일까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중세)는 오는 21일까지 가을철 산불 등 재난을 대비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일환인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7명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인원은 무주 10명, 남원 9명, 진안 9명, 장수 9명으로 나리터 및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공고 중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결격사유가 없는 응시자에 한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체력검정 등으로 통해 선발한다.

서류심사 합격자 통보는 오는 24일, 면접 등 검정은 26일로 최종 선발된 자는 11월1일부터 약40일 정도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30~5)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보호를 통한 국유림의 보전으로 숲 문화 혜택 제공 등 정부 3.0구현을 위해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기자

하림, 진안군 마조마을 찾아

감 따기 농촌일손돕기 나서

진안군 정천면 마조마을(이장 오영수)과 지난해 12월 22일에 1차시촌을 자매결연 맺은 (주)하림 임직원 30여명은 지난 15일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돕기 위해 마조마을을 찾아 마을 특산품인 꽃감생산을 위해 감따기를 도왔다.

그동안 (주)하림과 마조마을은 결연을 맺은 기간은 짧지만 올해 상반기 마조마을 주민이 (주)하림 공장을 방문하여 결연기업에 대해 아는 기회를 가졌으며, (주)하림에서는 사장 및 직원들이 여름 피서철 진안 마을축제에 참여하고 마을 어른신들께 북한 삼계탕 끓여주며 봉사활동을 하는 등 상호간 활발한 교류를 가지면서 돈독한 우호관계를 다지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22일 완주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대회 열려

사계절 아름답고 걷기 좋은 길로 소문난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대회가 진행됐다.

구이면은 오는 22일 토요일 제4회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걷기대회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가족, 친구, 동호회 등과 함께 걷고 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특히 구이면에는 모악산마실길(안덕마을 일원), 너브실 편백 은행길(신원마을 일원)등 아름답고 걷기 좋은 길도 조성돼 있어, 걷기명소로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이번 걷기 행사 구간은 총 4.7km로 구이중학교에서 출발해 최종도착지는 대한민국 스포테마박물관이다.

김동준 구이면장은 "구이의 명소인 대한민국 스포테마박물관과 사계절 매력 넘치는 구이저수지가 주는 가을의 정취를 함께 느끼며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